

우리나라 전통민가 평면유형분류의 변천에 대한 고찰

The Study on the transition in plane type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조 원 석*
Cho, Wonseok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into the plane type classification and reviews its transition which has been used in the basic research of the traditional hous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Until now, plane type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houses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us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or social class of the time. This classification was not used as a research tool to discover the hidden principal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raditional houses nor to attempt to restore the traditional habitation culture of the Korean peninsula.

키워드 : 한국전통민가, 평면유형분류, 변천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houses, plane type classification, transition

1. 서론

1.1 연구목적

한 나라의 전통민가는 그 나라의 전통문화가 투영된 문화 복합체라 하여 건축학, 지리학, 민속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중 건축학 입장에서의 전통민가연구는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 법칙성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여, 주생활 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주생활 변화를 제안해야 한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민가연구에서의 평면유형분류는 민가를 둘러싸고 있는 기후, 생활양식 등 주변 여러 조

건과 전통민가와의 관계성 또는 일반적 법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건축학 분야에서의 전통주거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기초적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 민가 평면 유형분류를 사용된 분류지표 및 이것에 의해 설명되어 온 내용 등의 변천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전통주거문화의 특질을 밝혀 바람직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분야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범위 및 내용, 방법

지금까지는 [주거, 주택]과 [민가]라는 용어를 명확히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여 온 경향이 있

* 정희원, 관동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나, 일반적으로 주거 또는 주택이란 지배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든 쉼터의 총칭이고, [민가]는 이 주거 중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사는 [여업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민가는 생업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세(細)분류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제구조는 [農者之天下之大本] 및 [土農工商]이라는 어귀에서 느낄 수 있듯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왔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 대해 농민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현존하는 다수의 여업집은 농가로, 우리나라에서의 민가란 농가를 의미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에서 특별한 주기가 없는 한 민가는 농가 또는 서민주택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현재 우리나라 민가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가유형분류는 일자집/꺾임집 등 평면형상, 초가집/기와집/너와집 등 지붕재료, 독집/투망집/돌담집 등 몸통(軀體)구조재료, 삼랑집/오랑집 등 뼈대구조의 구조형식의 특성을 분류기준으로 삼아 각각 설명되어 왔다. 이중 지붕재료, 몸통(軀體)구조재료, 뼈대구조의 구조형식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평면의 유형분류에 대해서는 여러 안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민가 평면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전통민가에 관한 일정시대의 일본인 연구에서 최근까지의 연구 중, 한반도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 검토한다. 특히 북한 또는 대한민국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라 할지라도 분단된 한반도 현실을 감안 해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그리고 부분적인 지역연구라도 유형화 관점 등이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가 될 만한 연구에 대해서는 언급한다.

연구내용 및 순서는 먼저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분류기준, 이 유형분류를 통해 설명된 내용 등을 개관하여 한다. 다음으로 전통민가 평면유형분류의 변천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방향을 검토한다.

1.3 기존연구

한국 민가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연구자는 조성기¹⁾와 강영환²⁾이 있다.

먼저 조성기는 민가조사연구를 1920년대 연구를 식민통치자료를 위해 철로 연변에 따라 조사된 견문기와 같은 것이며, 70년대는 문화재관리국이 실시한 한반도 전역에 걸친 종합조사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민가의 채집기록은 작도법에 의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민가 채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가의 연구목적은 건축문화의 어떤 가능성과 생명력을 발견하는데 있음으로 平面的 一方性을 지양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영환은 먼저 지리학, 민속학, 건축학 분야에서의 민가연구성과를 검토하고, 기존의 민가연구는 형태에 대한 규칙성 분석이나 단편적인 해석에 그침으로써 전통민가를 전통사회의 문화적 산물로서 체계적이고 의미론적으로 파악하는데는 각기 한계를 보여 주고 있음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전통민가의 복원조사 방법을 정립하고, 주거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민가에 대한 전통사회에서의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민가평면 유형분류의 개요

연구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연구 시기별로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생각됨으로, 우선 시기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일정시대 연구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로 나누고, 다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연구는 다시 북한과 남한의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조성기, 「한국민가연구서설」 (대한건축학회지24/93), 대한건축학회, 1980. 4
2) 강영환, 「한국전통민가연구의 동향과 과제」 대한건축학회지 33/2/147, 대한건축학회, 1989. 3

2.1 일정시대

한반도 민가에 대한 일정시대 연구는 船越欽哉(1898), 岩槻善之(1923, 2), 關野貞(1916), 藤島亥治郎(1925), 村田治郎(1924), 野村孝文(1942), 眞山武晟(1941) 등의 연구가 있으나, 여기서는 일본인들의 한반도 민가의 연구성과를 개관하기 위해 초기 연구인 岩槻(1923)와 말기의 眞山(1942)의 연구성과만을 검토하겠다.

岩槻³⁾는 민가 평면의 유형분류지표로 집의 크기에 따른 평면 모양새, 대청의 유무 및 위치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각 유형 이름은 지역명을 사용하여 북선형·남선형·중선형·경성형·서선형으로 다섯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선형’은 정주간이 있으며 田자형으로 방을 배치하는 모양새이고, ‘서선형’은 절대 L자형으로 하지 않고 별동을 이용하여 평행하게 또는 직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큰집에서도 대청을 설치하지 않는다.

‘중선형’에서 규모가 작은 집은 대청을 설치하지 않고, 중류주택에서는 대청을 설치할 때에는 서쪽 또는 동쪽에 두고 남쪽에는 안방을 설치한다.

‘남선형’의 배치는 서선형과 같으나 대청을 남쪽에 면해서 설치하며 그 크기는 2칸 또는 3칸 정도이다. ‘경성형’은 L자형으로 꺾어서 만들며 3칸 이상의 집에서는 대청을 설치하며, 사랑은 별동으로 한다.

그리고 眞山武晟⁴⁾은 표1과 같이 먼저 평면형상을 기준으로 L자형(도시형)과 一자형(지방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지역명, 평면 모양새라는 지표를 혼용하여 세(細)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각 유형을 평면 모양새, 대청의 유무, 온돌방의 배치, 분포지역, 바깥채 유무, 안뜰이라는 6개 항목에서 비교 설명하고 있다.

표 2. 眞山武晟의 분류안

대분류	세분류
L자형(도시형)	중선 L자형--궁전형
	서선 L자형--민가형
一자형(지방형)	외통一자형
	양통一자형

소수의 사례를 통한 연구지만 집의 규모에 따른 평면 모양새, 대청의 유무와 위치(이상 岩槻), 도시형, 지방형, 양통형, 외통형(이상 眞山) 등 우리나라 민가 유형분류의 기초적 개념이 제안되었으나, 한반도 민가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려는 분류라고 볼 수 있다.

2.2 대한민국 수립이후의 연구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이 분야의 학술정보 교환이 불충분한 채 각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북한 지역 민가에 대한 정보는 일정시대 일본인에 의한 조사연구가 전부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 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서 분단 이후의 연구성과가 일부 소개되었을 뿐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고고민속논문집 등 입수가 가능한 문헌에 소개된 민가 연구성과를 분석하겠다.

1) 북한에서의 민가평면 유형분류

해방후 민가의 유형분류를 시도한 초기 연구자는 북한의 리종목⁵⁾(1960)으로 그는 일정시대의 유형분류는 농촌주택에 대한 첫 인상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민가유형분류 기준설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일부에서는 구조형식, 벽체구조, 방의 설비 등을 분류기준으로 설정하는데 이것들은 주택의 개별적 요소로서 쉽게 변하며, 건축재료는 지방적 조건에도 관계되나 크게는 경제적 조건에 의존함으로 이와 같은 것을 유형분류기준으로 하면

3) 岩槻善之, 「朝鮮の架構について」(朝鮮と建築), 朝鮮建築學會, 1923. 2

4) 眞山武晟, 「中鮮地方の住宅について」(朝鮮と建築), 朝鮮建築學會, 1941. 7

5) 이종목, 「우리 나라 농촌주택의 유형과 그 형태」(문화유산),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

같은 지방 또는 마을에서도 수많은 유형들이 존재하게 되는바 유형분류의 민속학적 의의가 적다. 우리나라 주택은 용마루와 평면 구성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변하며 이 변화에 의해 주택의 기본유형이나 형태가 형성되며 그 외관이 규정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민가의 유형분류기준으로 채용하여 외통집과 양통집으로 대(大)분류하고 [표 2]와 같이 세(細)분류하고 있다.

표 3. 이 종목 분류안

대분류	세분류											
외통집	외채집											
	쌍채집											
	<table border="1"> <tr> <td> <table border="1"> <tr> <td>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td> <td>꺾음집</td> </tr> </table> </td> <td>꺾음집</td> </tr> <tr> <td>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td> <td>꺾음집</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td> <td>꺾음집</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대청마루 있는 꺾음집	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	꺾음집	꺾음집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대청마루 있는 꺾음집	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	꺾음집	꺾음집
	<table border="1"> <tr> <td>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td> <td>꺾음집</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대청마루 있는 꺾음집	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	꺾음집	꺾음집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대청마루 있는 꺾음집	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	꺾음집									
대청마루 있는 꺾음집												
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대청마루 있는 꺾음집	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	꺾음집									
대청마루 있는 꺾음집												
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												
<table border="1"> <tr> <td>대청마루 있는 꺾음집</td> </tr> <tr> <td>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td> </tr> </table>	대청마루 있는 꺾음집	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	꺾음집									
대청마루 있는 꺾음집												
대청마루 없고 부엌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꺾음집												

 꺾음집 || 양통집 | 정주간 있는 양통집 |
| 정주간 없는 양통집 |
| 세겹집 | |

그리고 황철산⁶⁾(1965)은 우리나라 전래의 주택은 기후풍토의 특성에 맞게 또한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창안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민가 유형을 [표 3]과 같이 외통유형과 양통유형으로 대분류하고, 다시 외통유형을 [표 3]과 같이 다섯으로, 양통유형을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연구성과로는 김내창⁷⁾의 논문, 조선건축사⁸⁾ 등이 있으나, 리종목, 황철산의 분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김내창은 외통유형에서는 리종목의 4분류를, 양통유형에서는 황철산의 3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건축사에서는 리종목의 분류에서 세(細)분류로 되어 있던 삼겹집을 대(大)분류로 독립시켜 외겹(외통)집, 두겹(양통)집, 삼겹집하고 분류하고, 외통유형에서는 쌍채집(二자집)을 세(細)분류에

서 제외시켜 一자, ㄱ자, ㄷ자, ㄹ자형 파리집으로 4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양통유형에서는 황철산의 3분류안을 따르고 있다.

표 4. 황철산 분류안

대분류	세분류	
외통 유형	一자형(외채집)	
	二자집(쌍채집)	
	<table border="1"> <tr> <td>ㄱ자, ㄷ자, 대청마루가 있는 집(중남부형)</td> </tr> <tr> <td>ㄹ자형 대청마루가 없는 집(서북부형)</td> </tr> </table>	ㄱ자, ㄷ자, 대청마루가 있는 집(중남부형)
ㄱ자, ㄷ자, 대청마루가 있는 집(중남부형)		
ㄹ자형 대청마루가 없는 집(서북부형)		
양통 유형	북부형(정주간이 있는 집)	
	중부형(봉당이 있는 집)	
	남부형(대청마루가 있는 집)	

북한의 대표적 연구인 리종목과 황철산의 유형분류[표 2,3 참조]를 비교해 보면, 외통형·양통형이라는 대(大)분류와, 외통형에서의 세(細)분류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양통형 세(細)분류에서 약간 의견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리종목은 분류기준으로 대청마루를 하나의 변형적 요소로 취급하고 있는데 비해, 황철산은 양통형의 세분류 기준으로 대청마루를 들어 남부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연구자 리종목이 세분류에서는 채용하고 있는 외채 또는 쌍채라는 분류기준은 주거기능의 분동유무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몸체의 모양새를 나타내는 ㄱ자, ㄷ자형 등의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논하는 것은 오류이다. 또한 황철산의 세분류 기준에서는 몸체의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과 지역명을 혼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종목의 오류는 조선건축사에서 수정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시도한 민가 평면 유형분류의 특징은 일본인에 의해 제안된 지역적 개념(도회지형, 지방형, 함경도형 등)을 배제하고 대(大)분류 기준으로 민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즉 민가의 방배치, 모양새에 따라 외통형과 양통형이라는 분류방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대한민국에서의 민가평면 유형분류

한국에서의 전국적인 민가조사는 1970년대 실

6) 황철산, 「우리나라 과거 주택유형과 그 형성 발전」(고고민속),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7) 김내창,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 6
 8) 『조선건축사Ⅱ』,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도서출판발언의 영인본, 1993 pp.59-60

시된 전국민속종합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민가의 유형분류를 시도한 연구자는 이민섭(1963)을 비롯하여 주남철(1965), 김정기(1970), 김홍식(1980), 조성기(1985)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남철⁹⁾은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민가를 포함한 주거사적 관점에서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주택의 일반적 특징을 기술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주택에 대한 일본인들의 연구를 a.일반형에서 평면형태의 독자성 무시, b.남부와 북부라는 기후 조건과 마루의 관련성의 검토미비, c.특수형의 누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선시대 주택을 몸체 평면 모양새에 따른 새로운 분류안, 즉 조선시대의 주택을 특수형·도시형·함경도지방형·평안도지방형·중부지방형·남부지방형·제주지방형으로 세(細)분류하고 이것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특수형’은 왕궁의 침전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고, ‘함경도형’은 함경도·평안북도·강원도 일부지방에 분포하는 민가로 몸체는 정지, 사랑, 고방 등으로 구성되어 田자와 같이 배치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평안도형’은 一자형으로 같은 형상인 남부지방의 주택에서는 마루가 부가되는 것이 일반임으로 이것과 구분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부지방형’은 개성과 서울일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대청이 ㄱ자로 구부러진 곳에 있고, ‘제주도형’은 중앙에 마루를 두고 그 좌우에 부엌과 방을 두는 것으로 이들 뒤에는 고풍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기¹⁰⁾ 또한 주거사적 입장에서 주택 평면을 상류, 중류, 서민주택으로 대(大)분류하고 있다. 이중 서민주택을 농, 공, 상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계급으로 정의하고 도시와 농촌과의 대지조건의 상위(相違)성, 몸체의 방배치와 모양

새를 분류지표로, 서울형·북부형·서부형·중부형·남부형·제주도형으로 세(細)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서울형’의 평면은 ㄱ자, ㄷ자, ㄹ자형으로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널찍한 마루방을 일직선으로 두고 안방에서 직각으로 부엌을 붙이는 것이며, ‘북부형’은 몸체에 부엌과 장지를 개방하여 병치하고 그 옆에 안방, 윗방, 사랑방을 田형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서부형’은 부엌 옆으로 두서너 개의 방을 한 줄로 병치(並置)하는 형식이고, ‘남부형’은 부엌, 안방, 마루방, 건너방을 한 줄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부형’ 평면은 부엌, 안방, 윗방이 중심이 되어 마루방이 안방 또는 윗방에 직각으로 구부러져 붙고, 그 끝 부분에 건너방이 놓인 모양새로 서울형과 유사한 점이 많다.

마지막으로 ‘제주형’은 남부형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그 차이는 안방 뒤와 건너방 뒤에 다시 줄 폭이 좁은 고풍 또는 광이 부설되며 마루방은 그 가운데 놓인 것으로, 형식으로 보면 양통형 주택으로 북부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정경운¹¹⁾은 한국의 민가가 정형화된 이래 외래문화에 의한 대변혁이 없이 시대변천과 함께 세부가 조금씩 변모한데 불과하다고 전체하고, 고고학과 문헌기록을 검토하여 민가가 갖는 내재적 발전 의미를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 즉 House Proper에 주목하여 이것이 각 지역의 사회적 모랄, 생활철학의 다름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되어 동북·서북·중부·동남·서남·제주 지방 민가로 발전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먼저 ‘동북지방민가’는 장지와 부엌을 House Proper의 기본으로 하고 장지와 부엌은 개방되어 있다. 이 특성은 신석기시대 竪穴주거의 House Proper가 근세까지 계승되어 온 것으로, 공간의 발전은 House Proper를 중심으로 田자

9) 주남철,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 I, II, III」 (건축), 대한건축학회, 1965
10)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I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p176~188, 1970

11) 정경운, 「한국민가의 기초적 연구」 (동양문화16), 영남대동양문화연구소, 1975

형으로 확장한다. 다음으로 고대 ‘서북지방민가’는 동북지방의 민가와 유사하였으나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이 생겨 상호간에 독립성을 가지게 되었다. 공간의 확장은 House Proper 공간에 온돌방을 첨가해 가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중부지방민가’는 House Proper의 구성이나 공간 확장 방법 등은 서북지방의 민가와 거의 같으나 평면은 4개의 온돌방을 동일 축 상에 배치하고 L자 형태로 대청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동남지방민가’는 부엌을 중심으로 공간이 확장되어지며, 온난한 기후 때문에 대청이 중시되어 왔다는 점이 서북지방의 민가와 크게 다르며, ‘서남지방민가’의 House Proper는 서북지역과 동일하지만 마루를 중심으로 온돌방을 배치한다.

‘제주도민가’는 남방계 민가의 House Proper 공간에 바탕을 둔 민가였지만 온돌이 전파되어 본토민가의 주공간이 이식되었다. 오늘날 민가는 남방계 주공간 구성의 잔영을 남기고 있다.

김홍식¹²⁾은 민가를 지역적으로 나누거나 그것을 경제적 여건이 아닌 기후적 여건에 결부시켜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가옥’¹³⁾과 ‘내가 본 한국의 민가’¹⁴⁾ 등의 논고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채용하여 유형분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연구는 일정한 모양새의 집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분류의 한계성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한마을 민가 평면을 완전히 조사하여 이것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고 공통적 특색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다음 다른 지역의 평면 유형들을 덧붙여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분류방법으로 표4와 같이 樣式(시대성), 形式(계층성), 型(지역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먼저 양식(시대성)은 중세, 근세양식으로, 형식(계층성)은 소농, 중농, 대농형식으로 분류하여 이를 樣式(횡축)과 形式(종축)으로 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각 항에 型을 삽입하고 있다. 이 型은 몸체의 모양새를 나타내는 분류기준(외통집, 양통집, 겹집, 곱은자집), 주거기능의 분산 유무를 나타내는 분류기준(외채형, 쌍채형, 세채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5. 김홍식의 분류안

시대 형식	중세양식	근세양식
소농 형식	一字외채집, 3間一字쌍채집, 4間一字쌍채집	곱은자형 도시형식
중농 형식	6칸양통집, 8칸양통집 또는 겹 집, 사방집, 一字세채型, 곱은자ㄷ字型, ㄷ자집	
대농 형식	一字ㄱ字型, ㄱ字집 또는 뜰집, 튼ㄱ字집	

김일진¹⁵⁾은 각 지방의 기후 풍토조건과 생산자료 및 생활관습의 차이, 신분 지위 및 경제력 차이에 의해서도 주택규모와 평면배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권세를 누린 양반 계층의 상류주택과 농공상에 존재했던 서민계층의 주택으로 양분하고, 이중 서민주택을 홑집과 겹집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노무라(野村孝文)¹⁶⁾는 한반도의 주택을 상류주택과 서민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서민주택의 일반형(기본형)을 온돌방을 일렬로 배치하는 평면으로 보고, 중분할과 횡분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복선형의 성립과 각 발전형을 설명함과 동시에 제주도형을 더해 3분류하고 있다. 다시 일반형(기본형)을 도회형, 서선형, 남선형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12) 김홍식, 「한국민가의 유형별 분류」(건축사), 한국 건축사협회, pp.8~13, 1980. 2
 13) 김홍식, 「가옥」주생활,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0.10
 14) 김홍식, 「내가 본 한국의 민가」(건축문화), 산업 도서출판, 1982. 6

15) 김일진, 「한국전통주택의 구성방법/평면구성」(공간), 1984.11
 16) 野村孝文, 朝鮮の民家, 學藝出版社, 1981

조성기¹⁷⁾는 오막살이집을 기본형으로 삼아 이 단계를 벗어나 지역별로 특징적인 요소가 부가된 발전형을 호남지방민가·호서지방민가·동남해안지방민가·영남지방민가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발전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용된 분류지표는 마루의 쓰임새와 위치, 방배치의 모양새로 각 유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호남지방’ 민가의 기본형은 부엌, 방, 마루로 구성된 3칸 홑집 평면으로, 이것은 부엌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되며 마루의 기능은 곡물저장 또는 신성한 곳으로 쓰여지고 있다.

‘남동해안지방’ 민가의 기본형 및 마루의 수장 기능은 호남지방 동일하나, 기본형에서 일반형으로의 변화를 보면, 부엌, 안방, 대청, 작은방으로 영남지방의 민가와 동일하게 민가의 정면성과 안청의 장소적 위치가 강조되고 있다.

‘영남지방’ 민가는 오막살이집에 대청이 부가되어 부엌, 안방, 대청, 작은방을 기본으로 하는 4칸 홑집으로, 상류주택의 안채평면을 母型으로 발전한 것이고, 호서지방의 민가는 오막살이집의 계열로서 발전형은 겹집으로 되나 안채에 마루가 없다.

다음으로 굴뚝과 아궁이의 지역적 특성을 검토하고 불 아궁이와 그 위치가 실의 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때로는 실의 집중화 현상 또는 뿔마루의 설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마루의 지역적 특성(수장기능, 생활기능, 상류주택의 모방)을 검토한 뒤에 마루의 기원을 상류주택형식의 모방과 자생적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들어 민가평면 모양새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남부지방 민가의 분포구조로부터는 산계(山系)가 문화교류의 장벽이 되었고 해로가 문화교류의 교통로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각 지방 민가 평면의 특성을 각 공간의 부엌에서의 기능적 관리와 방어적 요소

(호남지방), 마루의 미전과(호서지방), 상류주택형식의 모방(영남지방), 인접지역 주택형식에의 동화(남동해안지방) 등의 요인에서 설명하고 있다.

필자¹⁸⁾는 기존연구의 평면 분류지표는 한반도 주거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설정된 분류지표라고 하기보다는 민가평면의 모양새를 기준으로 분류해 지역적인 특성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또 기존의 주거 계통론은 주변국의 주거문화와의 비교연구도 없이 한의 문화, 북방문화, 해양문화 등 구체성이 없는 개념을 가지고 문화전과론적 입장에 편중되어 논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건축구법 발달론적 관점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불의 사용방법을 민가유형의 지표로 삼아 먼저 한일민가를 유형화했다. 즉 열원설비구조(배연구조의 유무), 건축구법체계(기밀구법, 통기구법, 중층구법), 열원설비의 기능적 특성(취사, 조명, 난방), 민가 평면의 발달(선상형, 괴상형, 분동형)의 상호 관계에 대해 논했다. 이 중 한반도의 다양한 민가 모양새는 온돌전파이전에 형성된 생활습속(거주부내에 봉덕화로를 내포한 채 발달해 온 계통, 거주부내에서 화덕을 독립시켜 발달해 온 계통)을 바탕으로 간접 복사열을 이용하는 온돌 또는 마루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섭하고 융합되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리학 분야의 장보웅¹⁹⁾은 예전에 문화지리학적 입장에서 평야형, 산지형, 도서형이라는 분류안을 제안하였으나, 이 분류안에는 Typology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자성하고 이 안을 수정하여 한국의 민가연구²⁰⁾에서 표5와 같이 대들보 아래 방을 일렬로 배치한 단열형(홑집)과 두 열로 배치한 복열형(겹집)으로 대분

17)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 1985

18) 趙源錫, 『火の使い方から見た民家構法形成に関する研究』, 東京大學, 1992

19) 장보웅, 「한국의 민가형식 분류에 관한 시론」(師苑 3·4호), 동국대학, 1974

20)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출판사, 1985

류하고, 다시 복열형은 5실형, 4실曲家형, 4실直家, 3실형, 특수형(측입형 민가)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단열형은 直家和 曲家로 분류해 直家は 一자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二자형, L자형, 口자형 등으로 변형되었으며, 곡가는 L자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ㄷ자, 口자, 「」자형으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분포의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단열형 민가 분포지역에 복열형 민가가 점재(點在)하는 분포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한반도 내에서는 복열형 민가가 단열형 민가에 선행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복열형 민가가 일본의 히로마(廣間)형과 구조와 기능이 유사하고 동해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로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복열형 민가가 전파되었다. 이에 대해 단열형 민가는 한반도 서쪽에 분포하며 이중 단열曲家형은 경기지방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로부터 曲家の 양자강 하류로부터의 전래 가능성과 이 曲家の 경기지방으로의 확산에 의해 단열형 민가가 남북으로 양단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표 6. 장보웅의 분류안

대분류	세분류
단열형	直家
	二字型
	一字型
복열형	중양부역형
	曲家
	5실형
	4실曲家, 直家형
	3실형
	특수형(側入型 민가)

마지막으로 민속학 분야의 김광언²¹⁾은 기존연구를 지역적 특성, 평면형태, 집의 규모에 따른 분류로 대별하고 이와 같은 분류는 대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며, 지리학, 건축학의 관점은 집을 단순히 건축구조물로 파악하고 있다.

21) 김광언, 한국민속지, 민음사, 1988

또 장보웅의 복열형과 단열형의 민가분포를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믿음, 인생관이 스며들게 마련이며 생활양식이나 관습에 따라서 집의 외형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민가를 평면 모양새에 따라 겹집계통과 홑집계통으로 크게 분류하고, 다시 행정구역과 지리적 조건(산간, 평야, 섬), 집의 규모(상류, 중류, 서민가옥)를 기준으로 세(細)분류하고 있다. 즉 겹집계통 민가를 함경도·강원도·황해도로, 홑집계통 민가를 평안도·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로 세(細)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민가는 겹집계통에 속하지만 한반도보다 일본의 서남부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 대한민국 수립이후 전통민가연구에서 평면유형분류는,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다른 전통민가의 특성을 단순히 설명하기 위한 것파, 한반도 전통민가의 본질적 특성의 규명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 관찰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a. 이질적 분류지표를 혼용하여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
- b. 유형을 분류할 때 먼저 지역명을 사용해 그 지역의 민가발달을 주장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발전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
- c. 분류지표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

따라서 전통민가 변천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 법칙성의 발견 또는 전통주거문화사의 복원이라는 전통민가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본연의 연구목적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반도 전통민가평면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및 제언

먼저 한반도 전통민가평면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채용된 분류기준을 보면, 초기의 일본인 연구자들은 지역 및 계층에 따른 주택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 또는 계층이라는 분류기준을 채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이후 민가평면의 유형분류를 위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채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 a.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지역(도회지형, 지방형, 함경도형 등) 또는 계층(상류, 중류, 하류)이라는 분류지표를 재검토하지 않는 채 일부 수정 인용한 것.
- b.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분류지표인 지역 또는 계층을 배제하고, 민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통형과 양통형, 외채집, 쌍채집, 꺾임집 등 민가 평면 모양새를 분류기준으로 하는 것.
- c. 경제적 조건, House proper, 불의 사용방법 등 전통주거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분류기준으로 사용하여 한 것.

그리고 위와 같은 한반도 전통민가평면 유형분류를 통해 설명된 대표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 a. 한반도 전통민가의 특성을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단순히 설명한 것.
- b.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 전통민가의 특성을 설명한 것.
- c. 기존 연구에 의해 밝혀진 지역적 특성의 생성원인, 한반도 주거발전과정에 내재된 일반적 법칙성, 주거사의 복원 등에 관한 가설도출을 시도한 것.

따라서 지금까지 한반도 전통민가연구에서의 평면유형분류는,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다른 한반도 전통민가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채용

하여 온 초보적 연구에서, 한반도 민가의 변천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 법칙성의 발견 또는 전통주거문화사의 복원 등을 시도하기 위한 가설도출의 도구로 채용하는 연구로 변해 온 경향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현존하는 한반도 민가의 대부분이 19세기 이후라는 것은 전통민가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본연의 연구목적 달성이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전통민가연구가 추구해야 할 본연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전통민가의 편년(編年)을 위한 연구와 동시에,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먼저 한반도 민가의 특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 유형분류지표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이에 따른 유형의 原形(Prototype)설정하여, 이것으로부터의 변화과정을 계열별로 정리하여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래된 유구(遺構)가 적응으로서 발생하는 논증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 유형분류지표의 타당성과, 역사적 변화과정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1.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Ⅳ), 고대민족문화연구소, pp.176~188, 1970
2. 김홍식, 「한국민가의 유형별 분류」 (건축사), 한국건축사협회, 1980. 2
3. 김홍식, 「가옥」 (주생활),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0.10
4. 김홍식, 「내가 본 민가」 (건축문화), 산업도서출판, 1982. 6
5. 김광연, 『한국민속지』, 민음사, 1988
6. 김일진, 「한국전통주택의 구성방법/평면구성」 (공간), 1984/11
7. 김내창,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 6

조원석

8. 강영환, 「한국전통민가연구의 동향과 과제」
(대한건축학회지 33/2/147), 대한건축학회,
1989. 3
9. 이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유형과 그 형태」(문화유산),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
10. 『조선건축사Ⅱ』,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도서출판발언 영인본 pp.59-60, 1993)
11. 정경운, 「한국민가의 기초적 연구」(동양문화
16), 영남대동양문화연구소, 1975
12. 주남철,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 I II III」(건축), 대한건축학회, 1965
13. 조성기, 「한국민가연구서설」(대한건축학회지
24/93), 대한건축학회, 1980. 4
14. 장보용,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출판사,
1985
15. 장보용, 「한국의 민가형식 분류에 관한 시론」
(師苑 3·4호), 동국대학, 1974
16.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박사학위논문, 1985
17. 황철산, 「우리나라 과거 주택유형과 그 형성
발전」(고고민속),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18. 趙源錫, 『火の使い方から見た民家構法形成に
する研究』, 東京大學박사학위논문, 1992
19. 岩槻善之, 「朝鮮の架構について」(朝鮮と建
築), 朝鮮建築學會, 1923. 2
20. 眞山武晟, 「中鮮地方の住宅について」(朝鮮
と建築), 朝鮮建築學會, 1941. 7
21. 野村孝文, 『朝鮮の民家』, 學藝出版社, 1981